

종합·해설

현장방문·간담회·토론회 등 본격 정책행보

민주 대선주자 '표밭같이' 가속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선 진출자들은 1일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홍보에 주력했다.

이들은 본선 경쟁에서 정책 제시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순회경선이 열리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지지세를 모으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강한 복지 구상 시리즈 1탄으로 '내 삶에 강한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비롯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자기보호네트워크 구축,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 기숙사 건립 등 11가지 생활 복지 정책을 공개했다.

손학규 후보도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국민과 함께 정책을 토론했고 만들어 나가는 '위키플리시'(위폴) 사이트(www.wikipolicy.co.kr) 개설식을 열었다.

손 후보 측은 "선거 때면 쏟아지는 '후보 중심의 정책', '위로부터의 정책'을 던져버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사이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손 후보는 이어 민주노총 보건의료

노조와 만나 의료 서비스 개선, 전국 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등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양대 노총의 산하연맹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열어 노동계에 러브콜을 보냈다. 김 후보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를 만난 자리에서 "건강 불평등과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 시켜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후보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며 "분수경

제와 공동체 복지, 긍정적 정치에너지 등 3대 비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유능한 대통령"이라면서 "저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정책을 모두 잘 아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종연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선에 임하는 각오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열기 더하는 새누리 득표전

새누리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1일 오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합동연설회에서 정권 발표를 마친 후 손을 잡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후보들은 제주지역의 깊은 상처로 각인된 4·3사건의 아픔을 어루만지는데 공을 들였다. 왼쪽부터 김태호, 안상수, 박근혜, 김문수, 임태희 후보. /연합뉴스

민주 "민생국회 8월 초에 열자" 새누리 "방탄국회 안돼...8월 중순께"

여야 임시국회 소집 신경전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28명 전원의 명의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다음날인 오는 4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내용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법 상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가능하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소집 이유

로 '민생'을 들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현안과 함께 여야가 개원 당시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국동 사저 의혹 특검 등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생각이 다르다. 박 원내대표가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 중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8월초에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따라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보름간의 검찰 수사의 시간적 여유를 준 뒤 8월 중순께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평련, 손학규 후보 지지하나

민주당 최대 정파...대선 지지 후보 결정 투표서 1위

민주통합당 최대 정파 중 하나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대선 지지 후보 결정을 위한 투표에서 손학규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민평련은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 찬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지지 후보는 내지 않기로 했다.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의 계파인 민평련은 지난달 31일 밤 저녁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손학규·김두관·정세균 등 4명의 후보를 놓고 참석자 전원이 투표지에 후보를 한 명씩 적어내 최하위 득표자를 한 명씩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표결을 진

행했다.

그 결과 정세균·김두관·문재인 후보 순으로 탈락했다. 최후의 1인인 손학규 후보를 놓고 마지막 투표를 벌였으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

이처럼 손 후보는 민평련의 공식적인 지지 후보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표결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본 경선 가도에 적지않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는 민평련 전국운영위원 재직 인원 59명 가운데 53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민평련 회장인 최규성 의원은 1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손 후보가 3분의 2 찬성을 받지 못해 지지후보로 결정되지는 못했지만 1위를 한 것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미칠 것"이라며 "우리 내부에서도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민평련이 끝내 손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부 토론과 표결을 통해 민평련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인 만큼 1위 후보를 어떤 식으로든 지지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김근태 상임고문의 아내인 인제근 의원은 전날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투표를 해서라도 지지후보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며 이인영 의원도 (지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평련 회원은 김근태 상임고문과 민주화 운동을 할 때부터 동고동락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600여명에 이른다. 민평련 소속 현역 의원만도 22명에 달해 지지 후보 결정이 당내 경선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돼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법관 후보 3명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김신·김창석·고영한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전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가결처리했다.

고영한 후보자는 출석의원 270명 중 찬성 226표·반대 39표·기권 5표, 김창석 후보자는 찬성 173표·반대 94표·기권 3표, 김신 후보자는 찬성 162표·반대 107표, 기권 1표로 각각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임 대법관 4명이 퇴임한 지난 10일 이후 지속돼 온 대법관 공백사태가 22일 만에 해소됐다.

국회는 또 강명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253표·반대 13표·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박지원 출석' 민주, 對與공세 돌변

민주통합당이 1일 본격적인 대외 공세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방탄국회 논란이 해소된 만큼 대외 공세를 강화해 8월 국회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특히 공세의 총구를 검찰에서 새누리당으로 돌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언론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정치공작을 해왔는데 박 원내대표가 8월 국회나 대선후보 경선을 위해서는 이 상황을 종로시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며 "이전 8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원 국회 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내곡동 사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사안을 8월 안에 마무리 지어야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나 법안심의, 예결산심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은 즉각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 문방위에서의 언론청문회 실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박혜자 의원, 광주시·정부 부처 관계자 주선

지역 현안 해결 간담회 눈길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광주 서갑)이 광주시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광주시와 환경부 자원순환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RDF(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관계부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올 예산이 60억원 반영됐지만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 있어,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시 관계자가 예산 사용 및 추진 계획을 설명하자, 환경부 담당자는 예산 수시배정과 내년도 예산 요청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달 3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국가방사선 안전과학원 설립 관련 부처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전략기술개발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과, 관련 분야 교수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가 추진 중인 국가방사선 안전과학원의 핵심 사업 내용을 조정한 뒤, 이를 담당할 정부부처를 일원화시켜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국가방사선 안전과학원의 핵심 사업 다섯 가지 중 원자력진흥연구와 방사선 진료 분야는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Global Top Green & Smart Energy Pioneer"

첨단 2단계 전력공급을 위한 전선관 매설공사 안내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전선관 매설로 도로굴착 공사를 시행 합니다. 공사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통행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 합니다

- 공사목적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지역 전력공급용 관로건설
- 공사기간 : 2012년 7월 - 2012년 11월 (4개월)
- 공사구간 : 일곡지구 한전변전소 앞 - 연제동 현대아파트 앞

- 기타 자세한 문의는 KEPCO 광주전남개발지사 ☎123 또는 720-4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하여 시민여러분의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주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KEPCO 광주전남개발지사장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12년 제9기)

- 개강일시 : 2012. 9. 7(금) 기초A반 9:30, 기초B반 19:00 심화A반 9:30, 심화B반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2. 7. 16(월) ~ 2012. 8. 24(금)
- 수업기간 : 2012. 9. 7(금) ~ 2012. 12. 21(금) (총 90시간)
- 수강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 A반, B반 각 30명
심화반 : A반, B반 (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료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토요일
A반 : 금, 토 오전 09:30~12:30
B반 : 금 야간 19:00~22:00 토 오후 14:00~17: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2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 (사)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토, 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 (062) 530-3873~3876
- 담당교수 :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

경매투자 **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 특수물건과 NPL 부실채권만 취급
- 교육비 / 임차활동비등 회비없음
- 수료중 단독 / 공동투자 가능
- 수료후 평생 무료상담 혜택

투자자모심(이사대우)

1. 자본금 5억원이상 가지신분
2. 경매 낙찰물건에 투자하실 분
3. 가등기 / 근저당으로 법적보장
4. 개인사무실 / 활동비등 제공

주 오천경매 투자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환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비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액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